

전남도에 붙어닥친 공직사회 '철밥통 깨기'

4개 시·군 도입... 확산 시간문제

울산시 남구청에서 시작된 부적격 공무원 퇴출바람이 전남지역의 공직사회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서울시청이 전 직원 3%에 해당하는 무능·불성실 공무원 명단 제출을 실·과장에게 요구하는 극약 요법을 쓰면서 공직사회의 '철밥통 깨기' 바람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도청을 비롯, 도내 시·군 곳곳에서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를 속속 도입하거나 이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이같은 분위기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산되는 추세여서 전체 공직사회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긴장감 도는 전남도=최근 박준영 전남지사가 부적격 공무원을 파악토록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지사는 간부들에게 실무 직원들의 적성을 최대한 파악, 실·국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능력을 극대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부서간 '기피공무원'도 함께 골라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전남도가 구체적으로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최근 박 지사의 지시에 따라 기피공무원으로 지목되면 최악의 경우 퇴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에 직원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박 지사의 기피공무원 색출령은 1년여

'기피 공무원 색출령' 전남도 긴장 고조 일부 "여론 물이 악용" 우려의 목소리도

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 직원의 편지에서 비롯됐다. 이 직원은 최근 박 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의 매일 술이

나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도 승진하는 것을 보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근무태만 직원 3%에 대한 명단 제출시한을 몇 시간 앞둔 15일 오후, 외근을 마치고 서울시청으로 돌아오던 공무원들이 시청 주차장에서 동료들을 만나 심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퇴출제 확산될까=15일 현재까지 전남도 내에서는 고흥군을 비롯해 목포·나주시, 곡성군이 퇴출제도를 도입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내에서 퇴출제를 도입하거나 계획중인 시·군은 전체 22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가 나쁜 공무원에 대한 퇴출이 지역주민의 호응을 받아 확산될 경우 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의 퇴출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의 신분관련 법령 위배 여부 등을 따져보고 이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행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반대=철밥통 공무원의 퇴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여론 물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선정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단체장 '직권 면직' 권한에 의해 얼마든지 무능력·부적격 공무원을 가려낼 수 있지만 새로운 퇴출제 운영에 따라 직원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조직사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퇴출대상 공무원의 반발이나 소송이 이어질 경우 행정력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민주세력 통합 가교될 것"

김홍업씨 무안·신안 보선 출마 선언

52개 시민단체 비난 성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56·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사진)씨가 15일 4·25 무안·신안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부이사장은 이날 오전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우리 지역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분열된 민주세력, 평화세력을 하나로 묶는 데 밑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로서, 때론 동지로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쌓아온 과분한 경험을 남김없이 다 바칠 것"이라며 "고향 방문 전 아버지를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김 전 부이사장은 현재 후보를 공모 중인 민주당에 응모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혀 향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이 후보를 내세울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부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 지인들이 많은 만큼 분열된 민주세력을 통합하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출마 반대에



대해 "생각에 따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앞으로 잘한다면 반대의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오는 4월 25일 무안·신안에 희망

과 도약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부이사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무안군청과 신안군청을 방문했다.

김 전 부이사장의 출마를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끈질기다. 광주·전남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김씨의 출마는 호남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그가 DJ의 후광을 밀거름 삼아 출마한 것은 결국 김 전 대통령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40일 앞으로 다가온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15일 현재 김 전 부이사장을 포함 민주당 소속인 김호산(43) 전 아태재단 회장 겸 실장 겸 무소속 유철영(28) 도서출판 백범형인간 대표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여권 '환영' 민주 '곤혹'

무안·신안 연합공천 성사 여부 촉각

김홍업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무안·신안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에 따라 연합공천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탈당 그룹은 연합공천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김씨의 무소속 출마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김홍업씨의 무소속 출마 선언에 반가운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로는 후보를 낸다고 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연합공천 카드에 부담을 지을 수 있는 '양수결정' 격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도 김씨에 대한 연합공천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후보를 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연합공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보궐 선거 정국에서 제외될 수 있어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당으로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씨와 민주당 후보와의 일전을 벌이는 것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김씨의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적극 만류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에 '알아서 결정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의 후보 공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배기운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정상적으로 후보 공모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연합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도 최소한 두자리 수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 한나라당 지지세제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기념 조형물 공모

김인경 조선대 미대 교수 작품 선정

김대중컨벤션센터는 15일 "지난 해 열린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는 조형물 공모전에서 김인경 조선대 미대 교수의 작품(조감도)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작에는 조의현(조선대 미대)씨, 가작에는 김성식(동림조형연구소 대표)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총 사업비 규모가 5억원(작품제작 4억5천만원)인 이번 공모에는 모두 19편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당선작에는 제작 및 설치권이 부여되고 우수작에는 500만원, 가작엔 3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김인경 교수의 당선작은 중앙 하단에 12개의 화강암 기둥을 세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등 지난 정상회의 참석자들의 초상과 수상단체의 마크를 청동부조로 제작·부착하고, 벽



면에 소속 국가와 수상연도 등 기본 정보를 새긴 형태다. 중앙 화강암 기둥 위에는 지구와 무지개를 상징하는 아치형 구조물을 세우고 아치 중심에는 날개를 가진 남녀 인체상을 설치기로 했다.

이 조형물은 오는 6월 15일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앙 전면에 세워질 예정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10월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김대중 前대통령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열린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인류공통 가치인 평화의 메시지를 디자인에 담자는 의미의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을 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5일 오전 (재)광주비엔날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피터 잭(Peter Zec)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장의 제안으로 오는 10월5일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터 잭(Peter Zec) 회장은 광주에서 국제적인 종합디자인 행사가 열리는 데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에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을 제안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은 10월 22일 세계 55개국 300여명의 디자인 단체대표들이 참석, 미국 샌프란시

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디자인협회 총회 때 영상으로 소개된다.

디자인 평화선언은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디자인에서 벗어나 평화와 복지, 빈곤퇴치 등에 기여하자는 의미의 소셜 디자인(Social Design) 개념이 모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디자인 평화선언은 21세기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엔날레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피터 잭(Peter Zec) 회장 등 유명디자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디자인 평화선언에 수록할 문안 작성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광주시와 비엔날레는 국제적인 디자인가들을 선정,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과 디자인 평화의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조형물을 김대중센터 앞에 세우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A large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 featuring a red background, a large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text, and images of hearing aid devices. It includes promotional text abou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earing improvement.